



과거 대면 상황에서 활발했던 학생자치의 모습.

(사진=대학주보DB)

# 대면 전환 앞두고 학생대표 다수 공식 과제는 ‘대학사회 복원’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장혜림 기자 vicky21524@khu.ac.kr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면서 신입생은 물론, 학생자치를 이끄는 학생대표는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 시간이 두 해째, 우리학교 국제캠퍼스(국제캠) 11개 선거구 중 7개에서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됐다. 총학생회장 자리마저 공석이다. 오랫동안 앉아 오던 학생자치의 위기는 코로나19와 맞물려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우리신문은 학생대표들에게 학생자치의 현 위치를 묻고, 비대면과 대면의 경계에서 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학생대표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생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는 입장이다. 응용과학대학(응과대) 박영후(응용수학 2016) 학생회장은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회의 역할은

어떤 측면에서 더 강조됐다”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정 업무에도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소용대) 정승우(컴퓨터공학 2019) 부학생회장은 “학생회는 단순히 행사를 진행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며 “학생들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행정실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른 단과대학들과 논의를 나누는 활동을 하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학교생활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단과대학 명칭 변경 문제가 있었던 외국어대학(외대) 박수빈(스페인어학 2018) 학생회장은 “명칭 변경 사안에 대해 학생의 목

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했다”며 “학생들 사이의 소통도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교 사이의 소통은 더욱 더 어려운 현실이었고, 학생회가 현 상황을 학생분들에게 전달하고 대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대표직에 대한 부담감은 커졌다. 응과대 박 회장은 “소통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학생회장직에 뒤따르는 책임감이 이전보다 크게 요구된다”며 “내년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부담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감은 국제캠 사정과 맞물려 더 무거워진 상태다. 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지난 1학기, 온라인 축제를 독단으로 진행했다는 문제로 탄핵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소용대 정 부회장은 “올 초에 있었던 총학 탄핵 관련 이슈로 특히 총학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총학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캠 전완주(일본어학 2015) 총학생회장은 지난 탄핵 위기에 대해 속내를 드러냈다. 전 회장은 “1학기 때의 일련의 사건들로 차기 학생대표를 준비하던 이들이 학생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한 “비대면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었고, 소속감이나 애교심을 느낄 새가 없어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세대가 주를 이루고, 내년 상황도 미지수로 비춰지기 때문에 학생대표를 고려했던 이들도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학생자치의 공백에 따라 소통 창구의 상실이 예견되고 있다. 김윤철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총학생회의 부재는 학생 의견의 집약과 조직적 표현의 장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치의 위기로, 자치를 핵심 의미로 하는 학내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전망했다.

이에 총학은 비상대책위원회 상태로 내년 상황을 대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전 회장은 “차기 학생회를 건설하는 것도 현 학생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1월부터는 대학과 협의하는 부분이 많고, 신입생 행사가 몰려 있어 내년 3월 보궐 선거 이전까지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는 대면 확대가 전망돼 지금 상황을 마냥 대입할 순 없다”며 “출마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선거제목을 조금이라도

개정하고 싶고, 비대면 세대가 대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대비해 정보 전달성 행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 임기를 시작할 차기 학생회도 대면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선출된 2022학년도 국제캠 학생회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활동적인 학생회’를 학생자치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다. 비대면 세대가 대학의 주요 활동층을 이루는 내년에는, 무관심한 학생자치를 반전시킬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와 참여 독려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국제대학 학생회는 “코로나19로 소속감이 약해진 학생들이 대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예슬디자인대학 학생회도 “위드코로나 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2022학년도 학생자치는 앞으로의 학생자치 참여 여론을 좌우할 것”이라며 “학교 행사와 경험에 아쉬움이 많았던 20·21학번 학생들에게는 처음 맞이하는 대면 대학생활 속에서의 다채로운 경험을, 새로 입학할 22학번 신입생에게는 안전과 활기를 갖춘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윤철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을 역전해 “오히려 온라인 정보를 교류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 투표 등을 활성화해 의사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제를 잘 설정해야 한다”며 “자주 의사결정의 형식이나 학사 행정 만족도나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접수하는 등 단순 일상 의제를 탈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학교와 연계해 사회진출 및 미래설계와 관련해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활동을 펼쳐도 좋겠다”며 “대학사회 복원과 이를 위한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대학교육연구소는 “그동안은 비대면 상황으로 학생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면이 될 경우를 대비한 아이디어 또한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차기 학생회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이해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자치가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며 “그런 원칙 하에서 학생들은 학생회가 이를 잘 취합하고 있고,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